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28개 펀드 선정... 연말까지 7693억

선정된 28개 펀드에 3717억 출자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분야
이달 670억 규모 펀드 추가선정 앞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 4개 부처는 한국벤처투자자를 통해 2020년 모태펀드 3차 정시 및 수시 출자사업 선정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3차 정시 및 수시 출자사업에는 총 74개 펀드가 신청해 심의를 거쳐 최종 28개 펀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8개 펀드에 모태펀드가 총 3717억원을 출자한다. 연말까지 민간 투자자금 약 4000억원이 매칭돼 총 7693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펀드는 연내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과 공유주택, 특허사업화 등 분야에 투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

〈2020년 모태펀드 3차 정시·수시 출자사업 선정결과〉 (단위: 억원, 개)

부처	투자분야	공고		선정결과		
		출자금	결성액	출자금	결성액	펀드수
중기부	스마트대한민국*	3,015	6,080	2,750	5,821	19
	규제자유특구	250	420	199	352	3
	소재부품장비	275	460	275	720	2
	중기부 소계	3,540	6,960	3,224	6,893	24
국토부	공유주택	200	250	200	250	2
특허청	IP직접투자	240	410	118	200	1
	특허기술사업화	175	350	175	350	1
	합계	4,155	7,970	3,717	7,693	28

*바이오 분야는 중기부·복지부 공동으로 조성(복지부 180억원 출자) /중기부

조원 조성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펀드 선정을 통해 비대면펀드 3416억원, 바이오펀드 1450억원, 그린뉴딜펀드 955억원 등 19개 펀드 총 5821억원을 마련했다. 상반기부터 조성하고 있는 5800억원 규모의 스마트대한

민국펀드를 감안하면 올해 목표 1조원을 넘어섰다.

그 밖에 오는 10월 수시 사업으로 670억원 규모의 펀드 추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올해 조성 목표를 2000억원 초과한 1조 2000억원 규모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는 대기업, 유니콘 등 멘토기업들이 후원자로서 후배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펀드 출자에 참여하고 있다. 멘토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인프라 등을 활용해 유망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측면 지원한다.

지역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펀드가 대전, 경남, 강원 지자체와 함께 3개 펀드 352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혁신주체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운용사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민간 공유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유주택펀드가 2개 펀드 2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공유주택을 공급·운영하거나 공유주택 관련 공유서비스(세탁대행·공유주차장 등)를 제공하는 스

타트업·벤처와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IP) 수익화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펀드는 1개 200억원으로 조성한다.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특허기술 사업화펀드도 1개 350억원 규모로 조성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펀드도 2개 펀드 72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중기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등 이번 모태펀드 출자사업이 우리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펀드 결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우리 스타트업·벤처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디지털서비스 심사 '이용지원시스템' 개시

과기부, 기업·수요기관 편의성 높여
디지털심사 위한 신청 방법 등 안내
다양한 기업 공공시장 진입 독려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선정 및 이용에 관심 있는 기업과 수요 기관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것이다.

기업 등이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 접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선정된 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될 예정이며, 조달청과 계약을 거쳐 디지털서비스 쇼핑몰에도 등록돼 수요기관이 더 편리하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사의 우수한 디지털서비스를 공공 부문

에 제공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연락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해 문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15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채윤정 사전통신 기자 echo@

삼성·LG, 중소 장비업체와 디스플레이 혁신

디스플레이 핵심장비 개발 협업
산업부, 민·관 참여 협력 협의체 발족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국내 중견·중소 장비업체와 손잡고 노광기·이온주입기 등 디스플레이 생산 핵심장비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웨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소재부품·장비기업과 패널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연대와 협력 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2018년 2월 구성된 민·관 공동 반도체·디스플레이 상생발전위원회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로 각각 분리하고, 30여개 디스플레이 업체 참여로 확대 개편해 구성된다.

이날 발족식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패널기업 2개사와 에스에프에이 등 소재부품·장비업체 6개사가 대표로 참여했고, 한국디스플레이산업 협회가 협의체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을 통해 "연대와 협력 산업전략"은 전 산업분야로 확산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스플레이산업은 패널기업 간의 연대, 패널기업과 소부장기업과의 협력만이 글로벌 1위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향후 연대와 협력을 위한 4가지 모델로 ▲ 노광기, 이온주입기 등 핵심장비 개발 ▲ 대·중·중소기업 상생형 사업재편 ▲ 소부장 성능평가 및 사업화 지원 ▲ 산학연 연대 퇴직 인력 활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용수 기자 hys@

한국투자증권, 복합 문화공간 '키스 스퀘어' 공개

라운지·도서실 등 486㎡ 공간

한국투자증권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사 2층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회의문화공간인 '키스 스퀘어(KIS Square)'를 오픈했다.

KIS Square는 한국투자증권(Korea Investment Securities)을 의미하는 약자에 광장(Square)을 결합한 이름이다. 총 486㎡ 공간을 모던한 디자인의 라운지와 도서실, 연수실, 회의실 등으로 꾸며 만들었다.

이 공간은 고객을 맞는 비즈니스 장소이자 직원들의 소통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로봇카페와 무인 매점이 입점해 있어 식음료를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로봇카페 음료판매 수익금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본사 2층 복합회의 문화공간 키스 스퀘어(KIS Square)를 오픈식에 참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은 전액 기부한다. 약 1만원의 책을 소장할 수 있는 오픈 서재형 도서실에서는 누구든 엄선된 양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새롭게 단장한 KIS Square 공간 안팎은 임직원의 아이디어로 이름 붙였

다. 먼저 회의실은 ABS(자산유동화증권), 뱅키스(Bankis), CP(기업어음), DLS(파생결합증권) 등 기억하기 쉽도록 알파벳순으로 증권사 색채를 드러낼 수 있게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신한銀, 전자무역서비스 신규약정 이벤트

은행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은행 또는 KTNET을 통해 12월 말까지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하고 신한은행을 전자무역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약정월 포함 3개월간 월 2만원의 서비스 기본료와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면제받게 된다.

전자무역서비스 약정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의 외환 전자무역 메뉴에

서 또는 KTNET이 운영 중인 유티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이 완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란 ▲수출신용장 통지나 수입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업무 ▲증빙서류 제출 없는 페이퍼리스 무역송금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등의 업무를 은행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신용장 통지수수료, 개설 전신료 등 은행수수료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안שמ 기자 smahn1@